

혼승 선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 대화 연구

박경은* · † 박진수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어문화센터,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글로벌학부 교수

Research on the Fundamental Dialogues for Communication Skills Improvement of Mixed Crew

Kyeong-Eun Park · † Jin-Soo Park*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ente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 Division of Global Maritime Studies,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Busan 49112,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표준 해사한국어 교육과정의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이다. 현재 국내 선원의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혼승 선박에서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 대화를 선정하여 이것을 외국인 선원을 위한 표준 해사한국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는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부원의 일상 업무를 목록화하고 이들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각국 대학에서 사용 중인 해사영어 교재와 내항상선의 외국인 선원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1차적으로 공통되는 업무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승선 유경험자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업무의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 업무 내용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주요 대화를 선정하기로 한다.

핵심용어 : 일상 업무, 혼승 선박, 의사소통, 주요 대화, 해사한국어

Key words : *Daily Tasks, Mixed Crew, Communication, Fundamental Dialogues, Maritime Korean*

1. 서 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1991년부터 외국인 선원의 도입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한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이 매년 약 0.5%씩 감소한 것에 반해 외국인 선원의 수는 매년 약 12% 증가하여 2016년 말 23,307명에 달하였다(한국해운조합, 2016). 외국인의 국적도 인도네시아(약 30%), 필리핀(약 24%), 베트남(약 20%), 미얀마(약 18%), 중국(7%)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유입되면서 혼승 선박이 증가하자 필연적으로 의사소통이나 문화 차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 입각하여 혼승 선박에서의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 대화를 선정하여 이것을 외국인들을 위한 해사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는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선원의 일상 업무를 목록화하고 이들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 주요 대화를 선정하기로 한다.

2. 외국어 교육 자료 분석

2.1. 해사영어 교재

먼저 여기에서는 MET(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래의 교재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 ① BLAKEY(1987) English for Maritime studies 2nd edition, Prentice Hall.
- ② LUO, LI(2011) 新海事英語(New Maritime English), China Communications Press.
- ③ GRICE(2012) English for Maritime Industry, Idris Education.
- ④ FERREIRA(2015) Maritime English Basics, French Naval Academy.

우선 상기의 모든 교재는 13~1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구성 방법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 교신저자 : 종신회원, jspark@kmou.ac.kr
* 주저자 : 정회원, kyeungeunp@naver.com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 째, 응급상황에 관한 내용(조난, 화재, 해적 피습)과 선박의 종류 및 각 부위의 명칭에 관한 내용이 네 교재 모두에서 나타났다. 둘째, 세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선내 조직(직책 및 임무), ‘항해(항해계기, 항로)’, ‘안전(부상, 응급조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갑판 및 기관실 보수유지’, ‘입항과 출항’, ‘기상(가시거리)’. 그밖에 하역 작업, 당직, 해도에 관한 내용도 두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

2.2. 해사한국어 교재

앞서 살펴 본 해사영어 교재들은 선원의 주요 업무를 알 수 있는 훌륭한 자료이기는 하나 모두 대학생(미래의 사관)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원의 업무를 알기는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는 선원관리회사가 외국인 선원 교육을 위해 만든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직 해사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은데다가 대부분의 자료가 내부자료라 입수가 곤란하여 두 권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 교육 자료들은 한국의 내항상선에 근무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갑판이나 기관에서의 부원의 실무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예를 들면 청락, 도장, 보수, 정비 등)를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해사영어와 해사한국어 교재의 단원명이 같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해사영어의 항해에서는 describe passage plan, how to give heading or how to explain the routes를 다루고 있지만 해사한국어의 항해에서는 기상상황이나 시정을 보고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유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해사영어의 응급상황이 해사한국어 교재에는 안전훈련의 형태로 나타나고, 갑판 및 기관실의 유지, 입항과 출항, 하역 작업 등도 해사영어와 해사한국어 교재 양쪽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 해사영어와 해사한국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부원의 개괄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승선 유경험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누어 업무 범주를 설정하고 각 업무 범주 별로 세부 내용을 작성하였다. 업무 범주는 아래의 표와 같다.(세부 내용 생략)

Table 1 업무 범주

	갑판부	기관부
1	회의 업무	회의 업무
2	갑판 정비 및 보수	기관 정비 및 보수
3	항해당직 업무	기관 당직 업무
4	입항 시 업무	입출항 업무
5	출항 시 업무	-
6	하역 작업	연료유&윤활유 수급 및 이송 업무
7	하역 당직 업무	-
8	현문 당직 업무	-

9	안전 훈련	안전 훈련
10	기타 업무	기타 업무

3. 설문조사

이상에서 도출된 부원의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내항상선에 승선 중인 선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3척의 선박에 314장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11명(갑판부 134명, 기관부 74명, 기타 3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각 업무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빈도로 수행되는지를 리커트(Lickert) 5점 척도로 각각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후 중요도와 빈도를 더하여 업무에 우선순위를 매겼다. 설문 결과 갑판부의 업무 범주의 경우 높은 순서대로 하역 당직 업무(8.50), 하역 업무(8.46), 안전 훈련(8.38), 입출항 업무(8.12), 현문 당직 업무(8.10), 갑판 정비 및 보수(7.90), 회의 업무(7.76), 기타 업무(7.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부의 경우 높은 순서대로 입출항 업무(9.22), 기관 당직 업무(8.88), 연료유&윤활유 수급 및 이송 업무(8.74), 기관 정비 및 보수(8.08), 안전훈련(7.88), 회의 업무(7.76), 기타 업무(7.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의 세부 내용도 모두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한 예로 기관부의 경우 1순위부터 5순위가 선창 덮개 열고 닫기(8.74, 하역 작업), 견시 하기(8.72, 항해 당직 업무), 업무 인수하기(8.64, 항해 당직 업무), 업무 인계하기(8.62, 하역 당직 업무), 육상 호스 연결하기와 호스의 밸브 열고 닫기(각각 8.61, 하역 작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업무는 시멘트 하기(7.08, 갑판 정비 및 보수)로 그 뒤를 이어 청탁 작업하기(7.27, 갑판 정비 및 보수), 지시사항에 이의 제기하기(7.45, 회의 업무), 업무 관련 요청하기(7.52, 회의 업무)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설문 조사를 통하여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목록화하고 이들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에서 선박에서의 기초 대화를 추출하여 혼승 선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한국해운조합(2016), 연안해운통계연보